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 가서 그들도 단식을 할 것입니다. 낡은 옷에다 새 천 조각을 대고 깐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 조각에 썩기어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빙어야 둘 다 보전됩니다.」(마태 9:14-17)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날,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 사람들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깐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 조각에 썩겨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 낡은 가죽부

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때문에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마가 2 : 18—22)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왜 금식하지 않는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장가가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떠난 후에야 금식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겹으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썩어서 더 찢어질 염려가 있고,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부대가 터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문제를 말하는 데 힘들고 어려운 현학적 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포도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등등, 인간이 사는 한계 안에서, 그리고 자연계에 비치는 여러 현상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잔치에서 금식하지 않는 일과 새 술과 가죽부대, 새 천과 낡은 옷 같은 실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역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새 것과 낡은 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나라가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든지 새 것을 찾는 사회풍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생활 필수품은 물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나 걸치례를 위한 물건들은 새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동이나 서울의 번화가를

다니는 것을 보면 여성들의 스커트가 짧아졌다가 도로 길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은 남자 바지를 여성이 입는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국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것을 보았고 일제시대에도 몸빼라는 바지를 여성들이 입고 다닌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행이라는 것이 언제나 새 것을 찾되 때로는 옛날것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옛 것을 새 스타일로 만들어서 유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새 것만을 찾는 동안에 낡은 골동품이나 옛날 식의 고전미가 넘쳐 흐르는 서예를 모아 놓고 감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 것 가운데 운치가 있고 지나간 날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들은 자신의 과거에 몰두하고 잠기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현실이나 현재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나간 역사를 현재의 자기와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적에는 지나간 날들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해하면, 현재와 미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존 오하라의 작품에, 한 신문기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충고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에게서 80살 먹은 노인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하며 또 10대의 어린 얼굴을 80살 먹은 노인에게서 찾아내는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 것은 언젠가는 낡은 것이 되게 마련이니 활짝 피었던 때의 장미꽃에서 오래잖아 시들게 될 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 신앙이 보수니 진보니 해서 구별하는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수천 년, 수

만 년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변치 않는 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과 역사적인 변천에 따라서 시대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신앙, 그리하여 설새없이 새로워지는 신앙, 이 두 가지 면을 다같이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해방의 신학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해방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해방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강단에서 얼마나 이것을 되풀이 강조했던가? 1945년 일제의 속박에서 민족의 독립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모두 서슴치 않고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해방이나 해방의 신학을 하나의 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기독교에 변변히 흐르는 장구한 역사를 외면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날의 역사에만 고착하면, 그것은 수구주의나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전통 속에서 새 것을 찾아보며 새 것 가운데서 과거의 전통을 살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술이란 오래 묵을수록 좋은 술이 되며 좋은 술 중에는 수백년의 저장을 거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누룩을 넣고 정상적인 발효작용을 거쳐서 오랜 시일이 지나게 되면 좋은 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새 술이 낡은 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룩과 시간입니다. 술을 술답게 하는 것, 술 맛을 진짜로 내는 것은 누룩이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와 기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써서 일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성도

의 신앙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누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은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것 속에서 낡은 것을 발견하고 낡은 것 속에서 새 것을 찾아내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다른 말로 꿈이라 해도 좋습니다. 꿈이 없는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좋은 누룩이라면 역사를 역사답게 하는 것은 좋은 상상력, 꿈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는 설계도를 보고서 완성된 집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리며, 그림 그리는 화가도 캔버스 앞에 앉아 앞으로 그럴 그림을 머릿 속에 꿈꿉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농사를 짓는 장사를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그의 생업이 무슨 직업이냐를 막론하고 그들의 머리 속에는 생활에 대한 청사진이나 꿈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상이나 꿈이 없다면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동물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예시할 수 있습니다. 팔순이 넘은 노인이 매일 아침 화초를 가꾸고 뜰에 야채를 심고 자라는 모습을 감상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 노쇠에게는 내일의 생명이 기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노심하여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뜰에 씨를 뿌리고 채소가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한 예를 찾아봅시다. 1950년에 있었던 6.25사변 때 미아리 고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 시민은 거의 남쪽으로 피난을 해버리고 서울은 텅 빈 집 같았고 더우기 미아리 고개에서는 연합군과 북괴들과의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당시 8군사령관이었던 벤 클리트 장군이 짚차를 타고 전투차

으로 가는 도중 미아리 고개 길 옆에서 어떤 노파가 조그
 작 물건을 앞에 놓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인적도 없는데 초라한 모습의 노파가 물건을 팔고 있는 광경
 이 너무 이상해서 그는 찢차에서 내려서 노파에게 다가 갔습
 니다. 「할머니는 왜 피난을 가지 않고 이런 위험한 곳에 머
 물러 있소?」하고 장군이 꾸짖듯 물으니 그 할머니 대답이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언젠가 꼭 돌아와요」하더라는 것입
 니다. 이 노파의 한 마디가 벤 클리트 장군의 온 몸을 감동
 에 젖게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이 집착, 그
 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장군은 강한 인상을 받고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으며 또 이길 것이라고 믿게 되
 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슬회하는 기사가 그후
 에 라이프 잡지에 실려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이 아무리 늙어도, 또
 아무리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소망과 꿈을 버릴 수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부조리의 근원에 이러한 꿈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소외감이 있고 그 때문에 모든 사회범죄가 매일같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피터 베르거라는 분
 이, 골목에서 소꿉장난을 하거나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야말로 자기를 초월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은 상상과 꿈 속에 완전히 몰두함으로써 자
 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새 술은 절대
 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 두어서는 안된다는 진리입니다.
 지난 주에 3.1사건 공판 법정에서 문동환 박사의 답변을 들
 으며 35년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일본 신학교 동기 생활에서
 우리는 앞날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부에 열중했습

니다. 같은 교실, 같은 교회에서 3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당시 선배였지만 1966년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간 함께 지냈던 분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날 이 두 분이 선 역사적 상황이 결국 낡은 가족부대였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30여년 간, 우리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현실에 참여하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꿈, 누룩이 발효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의 공의를 위한 생활의 술이 되자, 그만 낡은 가족부대는 터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존 질서나 율법은 인간성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간을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날의 희망과 꿈을 부풀게 할 뿐 누룩과 같이 발효하는 힘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자들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첫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부패해가는 썩은 역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부패해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써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결코 훈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약 때문에 예언자들은 담대하게 증언하며,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아모스 7:14-15)

아모스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양치는 목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3.1사건의 공판정에서 있는 동참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예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과 증언이야말로 이 역사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요,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과 누룩을 이제는 낡은 가족부대에 담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아올린 낡은 가족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그려는 억지 때문에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기워보려고 무리한데서 오늘의 비극과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은 세수하고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오년 전, 십년 전의 얼굴에 비교해 보면 주름살이 많아지고 어느새 흰 머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지냈기에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역사는 결코 역사적 문서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름살과 흰 머리칼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의 흔적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꿈과 누룩의 역할을 했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자기의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하루 세끼를 먹으며 살아오다가 그대로 늙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도 옛날에는 꿈이 있었다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나고 보니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는 것인가?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자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더

옥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상상이며 끊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저절로 발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고 쉼새없는 해산의 고통과 진통을 겪어서 현실은 변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애써 일하는 것과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는 아픔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롭고 견디기 어려운 곤경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루어진다는 계약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계약, 부활의 구원을 믿지 않고 오늘을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 : 5-7)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과 뒤흔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생활을 매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